

## 감성과 의복소재

Naruse Nobuko

잠사과학연구소

### 1. 머리말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각국의 협력이야말로 서로의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일본은 20세기 후반에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질시대로 변화하여, 금세기에 들어 21세기는 감성(sensibility)·mind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주된 키워드로 환경(environment)과 건강(health)을 들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사람의 치유와 관련시켜 취급되는 일이 많다.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사람의 마음은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규격화 과학기술의 발전은 IT 사회와 함께 확실히 생활은 윤택해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만족감·행복감을 채워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은 생활이 충족해지면, 정신적인 마음에 대한 감성적인 자극을 추구하게 되어, 보다 풍요로운 나날을 원하게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수학자·물리학자인 Blaise Pascal이 기하학적인 사고방법과 섬세한 사고방식을 팡세(Panse) 속에서 제창하고 있는 것이 유명한데, 일본인의 섬세한 마음 씀씀이·사고방식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특질이라고 믿고 있다.

### 2. 뛰어난 오감을 육성하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물질시대의 대량생산에 의한 효율과 균질성에 쫓겨, 사람의 감성이 무시되고, 그 결과 인간의 오감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활진반에 걸친 불품과 사상을 평가할 경우, 기능과 감성의 두 가지 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능은 기계적 측정으로 평가되지만, 감성은 사람의 오감인 시각(sight)·청각(hearing)·후각(smell)·미각(taste)·촉각(handling)에 의한다. 그 평가자는 사람이며, 뛰어난 감성을 지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간의 감각 그 자체를 검사하는 분야가 중요하며, 일본인 본래의 섬세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뽕으로 키우는 가잠(家蠶)의 성충(나방)은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않는다. 그것은 날아야 할 필요가 없도록 오랜 세월이 걸

쳐 사람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기능이 퇴화된 것이다. 그 덕분에 일본에서는 그 험난한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600계에 가까운 누에의 원종을 남기고 있다. 지금도 전문기관이 누에는 일대교배(一代交配) 이므로 매년 종자(란)를 부화시켜 원종자의 보존과 신종자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예를들면 일본의 전통극인 카부키 의상의 선명함, 섬세한 움직임, 흰눈은 소리도 없이 내리는데, 미묘한 소리로 내리는 눈을 느끼게 하는 것 등 종합적인 무대의 섬세함이 있다. 또 무형문화유산인 일본의 전통예술 能은 狂言의 모든 것이라 하여 愛知萬博(愛·지구박람회 2005)에서 170명의 경연으로 공연장을 가득 메운 입장객을 매료시킨 장면을 보았는데, 그 운치 있는 의상의 색채나 연극배우의 동작과 음향의 섬세함이야말로, 일본이 만들어 낸 예술의 하나로, 일본인의 감성을 육성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 3. 감성 의류소재

일본에는 독자적으로 뛰어난 텍스타일(textile) 개발의 역사가 있다. 1970년대의 차별화소재에서부터 특화소재를 거쳐 1980년 중반 이후의 신합섬에 이르는 개량개질기술에 의해, 현재의 국내산 텍스타일은 양보다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합섬은 singousen으로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신체에 좋은 환경문제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니버설 소재(universal textile) 헬스케어 소재(healthcare textile)로서의 의류를 비롯하여, 침구나 소품, 생활관련용품 등에 충분한 기능을 겸비한 감성소재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웨어에 대한 평가는 세계에서 높고,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성능을 지닌 쾌적한 텍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각국의 올림픽 선수에게 일본의 스포츠 메이커가 목적에 맞추어 제작하였지만, 점차로 스포츠웨어는 타운웨어가 되어 일반화되고 있다. 기능과 함께 오감에 호소하는 쾌적성, 관객을 자극하는 색채, 감각적 느낌 등이 일본 텍스타일의 특징이다.

Fig. 3은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텍스타일의 요건으로, 목적에 따라 이러한 성능을 충족시킨 제품생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Table 1은 여러 회사에서 개발한 치료(healing) 소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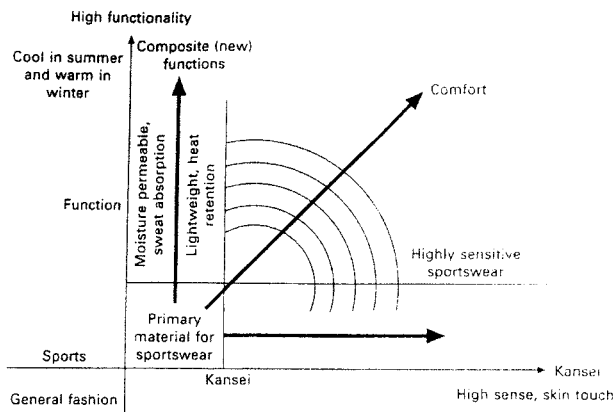


Fig. 1. Evaluation of highly sensitive sportswear(New millennium fibers,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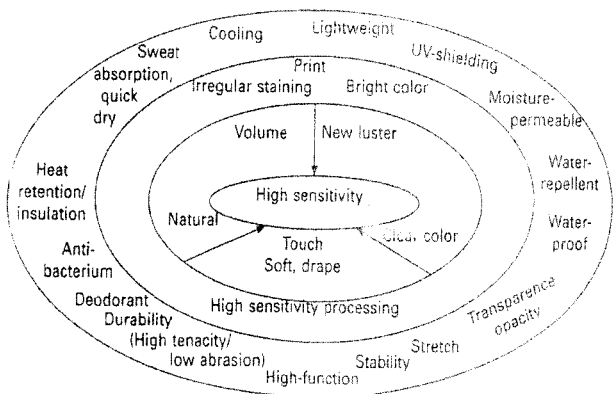


Fig. 2. Sportswear requires different functions(New millennium fiber, p.147)

한 예를 제시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현재, 일본 국내의 데님 기업인 카이하라(주)는 경사에 유라기(ゆらぎ: 자연계에 존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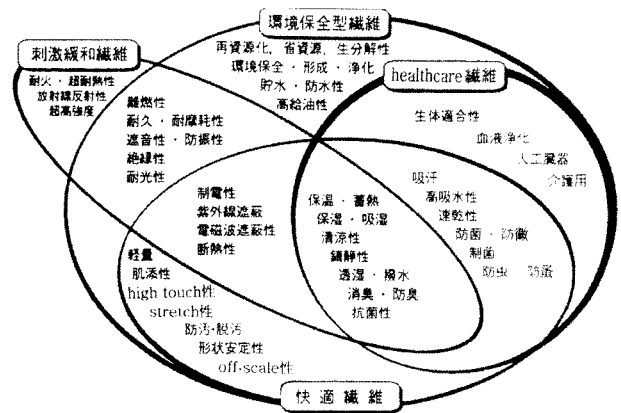


Fig. 3.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섬유(楳原莞爾 本宮達也 [뉴 프론티어 섬유의 세계] p.193 일간공업신문사, 2000).

는 마음 편안 리듬 1/f) 면사를 사용하여 데님을 생산하고 있다. 이 진즈 표면의 쪽염 얼룩은 단순히 후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멋을 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생산하는 감성소재는 나날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 해외로의 수출에도 공헌하고 있다.

2005년 12월에 동경에서 국내 최대의 섬유관련 건본전(Japan creation 2006)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술에 의해서, 최고조에 달한 극세사의 기늘기·가벼움·부드러움·섬세함을 자아낸 텍스타일이다.

#### 4. 맺음말

각각의 나라에는, 오랜 역사·문화가 있고, 그 민족에 깊이 스며든 감성이 있으므로, 일본의 텍스타일에, 색·무늬·디자인은 각국이 특색을 갖고 구성하여, 기능·감성 모두 뛰어난 의복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한다. 오랜 기

Table 1. 각사에서 개발한 healing 소재의 한 예(출처 : 高倉護, 섬유공학 51권 p. 636, 12월호(1998))

상품명	메이커/제조회사	상품·기술의 특징	주 용도
自然のゆらぎ 시젠노유라기	日清紡 닛세이보우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음 편함의 리듬 1/f 흔들림에 따른 얼룩효과를 표현	의류-침장, 인테리어 부인용 니트
ムラ・ニュ 무라뉴	日清紡 닛세이보우	1/f 흔들림을 다른 소재의 혼합을 변화에 의해 이색효과로 표현	부인용 니트 (티셔츠, 폴로셔츠)
ウィビ・マジック 위비마직	クラボウ 쿠라보우	fractal 이론을 응용. 자연의 맛이나 새로운 변화를 실, 천에 표현 (수방적 調, 마풍, 파조결복)	진즈, 캐주얼 유니폼, 니트
バイオ サウンド 바이오사운드	東洋紡 토우요우보우	원화를 스펙터클해석, 릴랙스한 자연의 리듬을 프린트 디자인에 도입	침장·침구, 인테리어, 의류분야
ホ・リック 호릭	シキボウ 시키보우	rare earth광석을 레이온에 이겨내어 방출하는 미약방사선이 공기 중의 미 분자를 마이너스이온화	의류, 침장, 인테리어
ステイヤ・ズ 스티야즈	富士紡績 후지보우세키	천연방사선 희유원소광물을 이겨내어(혼합하여) 마이너스이온 효과에 의한 릴랙스, 안면효과	침장품, 셔츠 어깨패드, 안감지

간 문화여자대학에서 많은 유학생들의 교육도 담당하여 왔으나, “일본의 텍스타일이 아니면 옷은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학생이 말하던 것이 귀에 남아 있다.

감성교육 속에는 감성평가학이 있는데, 심리학·색채학·통계학 등 많은 기초교과가 필요하며 앙케이트 등에서 응용할 수 있어 유효한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다양한 분야의 응용학에 감성평가가 필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번역 : (주)소모로 정혜민 대표)



Naruse Nobuko(成瀬 信子)

(일본)문화여자대학 명예교수

현재 : (일본)잠사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